이보미-이완 결혼사진 공개

이완·이보미의 결혼식

프로골퍼 이보미(31)와 탤런트 이완(35)의 결혼식 사진이 공개됐다.

이완의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29일 "많은 분들의 축복과 응원 속에 열린 28일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잘 마무리됐다. 예식은 양가 가족들을 배려한 두 사람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관계로 별도 촬영이나 취재가 불가했다"면서 결혼식 사진을 뒤늦게 공개했다.

지난해 초 성당에서 신부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로 사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고, 28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07년 KLPGA에 데뷔한 이보미는 2010년 KLPGA 투어에서 다승왕, 상금왕, 최저 타수상을 차지했다. 2011년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2015년 시즌 7승과 함께 2억3000만 엔(약 19억 원)으로 남녀 일본프로무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상금을 경신했다. 탤런트 김태희(39) 동생인 이완은 2004년 SBS TV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해 KBS 2TV 월화드라마 '백설공주'(2004), SBS TV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2016~2017) 등 드라마와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2015)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Lotto 6/45 891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12월28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9	13	28	31	39	41	19

1등 총 당첨금 2,157,578,717,629원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7	3,082,673,94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77	46,707,18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443	1,472,14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22,132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998,623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

성대하게 치른 류현진 토론토 입단식…그가 보여줄 리더십에도 관심집중

"헬로우(Hello), 캐나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28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공식 입단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입단식을 성대하게 치르며 새로운 1선발 투수를 반겼다. 1 류현진(왼쪽 두 번째)이 토론토 찰리 몬토요 감독(맨 왼쪽), 로스 앳킨스 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마크 샤피로 사장과 입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등번호 '99'를 받은 류현진. 3 류현진과 아내 배지현씨(왼쪽)가 구단이 준비한 유니폼을 든 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의 유니폼을 들고 있는 류현진. 4 토론토 라커룸에 새겨진 류현진의 등번호와 이름. 토론토(캐나다 온타리오 주) | AP뉴시스

리더 류현진 "젊은 선수들과 적극적 스킨십"

NHL 영웅 그레츠키 99번 첫 주인공
팀내 젊은 유망주 이끌 새 리더 의미
홈구장서 성대한 입단식 '특급 예우'
앳킨스 단장 "그가 가져올 성공 기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이 새 둥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도 기존의 등번호 99번을 그대로 달고 뛴다. 토론토 소속 선수로는 최초로 99번의 주인공이다. 99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전설이자 캐나다의 국민영웅 웨인 그레츠키의 숫자이기 때문에 1977년 창단한 토론토에서 이 번호를 단 선수는 없었다. 토론토 구단 최초 99번의 주인공으로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류현진의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다.

토론토 구단도 류현진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 28일(한국시간) 홈구장 로저스센터에서 성대한 입단식을 연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토론토 로스 앳킨스 단장은 "류현진이 가져다줄 성공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찰리 몬토요 감독도 "우리는 메이저리그(MLB)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을 얻었다"고 했다.

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최근 3년 연속(2017~2019시즌)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 4위에 그쳤던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류현진에게 주어진 과제다. 무엇보다 기존에 뛰었던 한화 이글스(KBO리그), LA 다저스 시절과 지금의 류현진은 입장 자체가 다르다.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다. 한화에서 구대성, 정민철, 다저스에서 A.J 엘리스, 후안 유리베, 러셀 마틴 등 리더십이 뛰어난 베테랑 선수들로부터 터득한 것을 토론토에서 보여줘야 한다.

특히 내야의 핵심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20·3루수)와 보 비셰트(21·유격수), 케번 비지오(25·2루수)는 물론 주전 포수 대니 잰슨(25)은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피'다. 모두 투수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포지션이다. 특히 토론토의 내야 수비에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 또한 에이스, 즉 류현진의 몫이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년 시즌 사실상 개막전 선발로 내정된 류현진의 입단식에서도 토론토의 젊은 선수들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류현진은 "젊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며 성장하고 있다"며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은 내게도 영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같이 해나가야 한다. 선수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도 있고, 그들이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서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와 '동반 성장'을 선언한 것이다. '리빌딩 팀'의 성장 과정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 류현진에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할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몬토요 감독 '봉고' 연주…류현진 2세 유니폼도 선물

주요 인사 총출동…현지언론 대서특필
류현진 "모든 홈 경기 100% 보여줄 것"
30일 귀국…'제야의 종' 타종 행사 참석

캐나다 현지가 들썩인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현지 언론도 류현진(32·토론토)에게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류현진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입단식 및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931억 원)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것.

구단 역사상 최고액 프리에이전트(FA) 투수인 만큼 입단식도 성대했다. 마크 샤파이로 사장, 로스 앳킨스 단장, 찰리 몬토요 감독 등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특히 몬토요 감독은 떠들썩하게 환영했다. 류현진과 아내 배지현 아나운서,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감독실을 찾았고 몬토요 감독은 타악기 봉고를 신명나게 연주했다. 2020년 태어날 '류현진 2세'를 위한 유니폼도 함께였다. 말 그대로 대스타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헬로 캐나다! 봉주르(Bonjour)"라고 운을 뗀 류현진은 "토론토는 나를 가장 원한 팀이다. 나 역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로저스센터 마운드에 설 때마다 늘 100%를 보여드리겠다. 경기장을 많이 찾아 응원해달라"고 게재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도 입단식을 대서특필했다. '스포츠넷'은 29일 "그는 우리의 에이스가 될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그를 집중조명했다. 통산 땅볼 유도율 48.4%의 기록 등을 세세히 소개하며 "구단은 류현진이 4년간 500이닝 정도 투구하길 바라고 있다. 분명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류현진은 내년 1월 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여한다. 국내 최고 스포츠스타다운 행보다. 뜻 깊은 행사를 소화한 뒤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토론토에서 맞을 첫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100%를 보여드리겠다." 류현진이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토론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사진출처 | 류현진 인스타그램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